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발행소	동지 회중앙부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Publisher Address	Korean Dongji Hoi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주필 전화	김정근 김창원 850-849	President Editor Telephone	Chung Kun Lee Donald C.W. Kim 850-849
발행호수 발행일	1744 올해 9월 4일 8일 금요일	Subscription Issue No. Date	\$10.00 per year 1744 May 23, 1969: Friday

애펴로 +호 대성과 거두고 키도

(유-스는 5월 23일 밤 공동) 미우주선 애펴로 10호는 미동부아시아간 22일, 이번의 비행의 최대의 목적이었던 달착륙선의 의한 달면 9.4 마일까지의 강하에 성공하였다. 10호는 반사이때, 전에 업은 오르오 비행을 계속하고있었는데, 이날에 달착륙선의 달구데오의 첫비행에서는 예기하지 않은 여러가지 고장이 일어났다. 그러나 전체로는 곤란한 저공비행, 복잡한 구데오변경을 고모이 아고, 달구데오에서의 입을 다 마치고, 달착륙의 연습을 다 마쳤다고할수있다. 이리하여 달 착륙은 가까운 일로되였다.

참전국회의 하루로 폐기

(평양 5월 23일 밤, 공동) 비에트남참전 7개국대표회의는, 2일간의 예정을 하루 주리고 22일 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회하였다. 공동성명은 (1) 침략에 대해 저항하는 남비에트남에 지원계속을 재확인한다. (2) 철퇴에 관한 미국과 남비에트남의 제안을 환영한다. (3) 남비에트남민중의 의사에 반한 협박정권을 강요할것을 거부한다. (4) 타병각국은 분쟁해결에도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이다. 공동성명은 각국대표의 발언을 대체 총괄적으로 포함하고있는데, 오기나와문제에 대한 한국 의상의 발언은 들지안고있다. 이번회의는, 니슨현설후 저음의 참전국회의로서 주목되 고있었는데, 결국 어느나라도 니슨현설후, 새삼스러이 전쟁노력의 강화를 강조할수도없고, 다만 미국의 큰 방침에 따라 움직인다는 상상이었다.

켄네디의원안상법 써-한에 시험판결

(마성 5월 22일 밤, 에이피) 마성의 주최고재판소의 이벳.워-커판사는 21일, 마벳.켄네디상원의원 안상법인 써-안.써-안 (25세)에 사형의 판결을 내렸다. 전에 배신이 사형의 심경을 내린후, 워-커판사의 판결은 중신형에 감형을 할수도있었고, 또 고인의 동생 에드워드.켄네디상원의원 으로부터 "안사람의 죽음에 더 안사람의 죽음으로서 보답하지말라" 라고 감형을 원하는 서한도 보내왔는데, 결국은 심결대로되였다. 써-안은 판결후에 미소를 띠고, 어깨를 흔들었다. 써-안의 주입법오사 루랜드.루-머씨는 기자관에대해서 주최고재판소로부터 안중국최고재판소에 장소하는데 1년을 걸릴것이라고 말하였다. 써-안은 금주 2년. 4년. 1년 형무소의 사형수방으로 옮겨지게 된다.

(제 1 편)



파리화평회담서 미대표 포효문제로 항의

(파리 5월22일밤, 에이피) 파리화평회담 제18회본회의는 22일, 4시간50분에걸쳐서 열렸는데 철병, 비에트남 정세등의 쟁점에대해 아무 진전을 보지못하였다. 랫지 미수석대표는 지금에는 "장자의 열쇠가될 여타점에대한 생산적인 토론" 의 기초가있다고 발언하였는데, 북비에트남과 해방전선측은 니슨미대통령의 8항목 회명제한에대한 공격을 반박하였다. 또 금주초 스산.오이 북비에트남수석대표가 "미국이 침략전쟁을 계속하는한, 미군포로의 성명서는 제출할수없다" 라고 언명한것에대해서, 랫지 미수석대표는 심하게 항의, 이점이 금주의 주요문제가될것이다.

대규모전쟁의 위기 스에즈운하서 공중전

(카이로 5월22일밤, 공동) 21일, 스에즈운하일대의 운단유전선일대에서 새로운 전투가 발생하였다. 스에즈운하에서의 전투는, 전투기중지의 공중전으로, 카이로측의 반포에의하면, 이스마엘기의 3편대가 운하북방으로부터 애람연합측에 침입 1기가 격추되었다. 이에대해서, 이스마엘측은 애람연합측의 미구 21전투기3기를 격추하고, 1기를 격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상방이 다 "전기무사의 귀환하였다" 라고, 자국측의 손해를 인정하지안고있다. 한편 운단유전선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차들 포함하는 기동부대가 공군의 지원을받으면서 남방의 유전선을 넘어서 운단에 침입하였다. 운단군대편인은, 4시간반의 전투에서 운단측은 이스라엘군을 총격 시켰다고한다. 카이로의 권측측은, 21일의 새로운 두전투와 최근의 중동의 군사정세모로아, 중동에서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질것이라고 보고있다.

오기나와문제서, 한국은 핵기지철거에 반대

(동경 5월21일밤, 공동) 한.일 양국의 재계 정계관계자로 결성되어있는 한일협력위원회(회장 기시전수상)는 21과 20일의 양일 동경.아가사가의 푸린스.호텔에서 일본측으로부터 기시전수상, 후나다전중원의장, 한국측으로부터 배수진 전수상, 장기영전수상이 출석하여, 제1회상임위원회를 열고, 양국에 공동한 정치, 경제문제에대해서 의견교환을 하였다. 석상, 오기나와문제에서 한국측으로부터 "한국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일본 미국 고성의 결과에 큰 관심을 가지고있다. 특히 핵기지를 철거하는경우에는 한국의 방위에 큰 영향이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간접적이면서, "핵실험" 기지에 반대의 의향을 나타냈다. 또 경제문제에서는 (1) 무역의 불균형 (일본측의 심한 수출초과) 을 시정하기 위해 무역개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책을 추진한다. (2) 경제제제도의해 입중 추진한다. 확실히 운방수단으로서 시모노새끼-부산간의 화물선을 운항하는 합동기업을 설립한다 등으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미드웨이에서 미.남비에트남 수뇌 회담

(와싱튼 5월20일밤, 에이피) 니슨대통령과 규.반.주 남비에트남대통령은, 6월8일 래명양의 미드웨이도어가 비에트남문제에대해서 협의할것을 와싱튼과 사이곤에서 동시에 발표하였다. 동의회장은 하루도 "갓날 예정으로, 의제는 명백치안으나, 미군의 철퇴, 남비에트남의 선거문제등에 대해서 회담할것으로보인다.

이번의 미.남비에트남수뇌회담은 추대통령이 지난 17일에 제안한것으로, 처음되는 니슨.추회담이 된다. 추대통령은 근손전대통령과 작년7월 호노루투에서 회담한일이있다. 미드웨이회담에는 미국측으로부터 라자스 국무, 메아드국방장관, 반커 남비에트남주재미대사들이 출석한다.

니슨대통령, 7일 8일 두밤을 하와에서

또 20일의 발표에의하면, 니슨대통령은 미드웨이에 향하는도중과 귀도에 각각 호노루투에들터 일박한다. 백악관발표의 일정에의하면, 니슨대통령은 6월3일 워싱턴 출발, 사우스.다코다주 스.윌스플리나, 보토타도주 크로타도.스푸링에 일박, 익일 중군사관학교졸업식에서 연설, 그후 가주에날려 동지에서 퍼드웨이 회장의 준비를하고, 6월7일 호노루투서 일박, 익일아침 미드웨이로날려, 회담을 마치고 귀도 8일밤을 호노루투에서 지내고, 9일 와싱튼으로 돌아간다.

미군포로의 조기석방을 레아드 장관이 호소

(와싱튼 5월20일밤, 메아드미국방장관은 19일의 기자회견에서 북비에트남과 남비에트남민족해방전선에대하여 미군인포로들 전원 속히 석방하도록 호소하는동시에 전시포로에관한 1949년의 제네바 조약의 조항을 지키도록 요구하였다. 동장관은 특히 제네바조약이 요구하고있는 포로의 시명 질병과 부상하고있는 포로의 지시석방, 포로수용소의 공명한 시찰, 포로전원의 적절한 대우등의 조항을 지키도록 호소하였다. 미국당국의 발표에의하면, 북비에트남 또는 남비에트남에서 포로가 된 미군인은 336명, 행방불명자는 967명으로되어있다.

중공 북조선관계 악화 국경봉쇄

(와싱튼 5월19일밤, 공동) 와싱튼에서의 외교측이 발표한바에의하면, 중공과 북조선의 관계가 악화되었기때문에 국경이 봉쇄되고있으며, 과거 5개월간에 국경을 사자고 사상방으로부터 두번재의 발표사건이 있었다고한다. 동측에의하면, 발표에의한 사건이 일어난것은 작년 12월과 금년 3월로, 사상방의 손해는 알수없다. 국경봉쇄의 시기는 확실하지안는데, 봉쇄시에 만든 북조선인이 불공측에있었다고한다. 이들 북조선인은 군인이 아니고 일반시민으로, 상업과 농업등의 일도 자주 국경을 왕복하고있는 사람들이라고한다. 외교측에의하면, 발표사건은, 이들 북조선시민이 중공측으로부터 북조선측으로 도망출때에 발생하였다.

동남아시아에의 원조 한정

라자스 국무장관이 시사

(뱅크 5월20일밤, 에이피) 라자스미국부장은 20일, 동남아시아조약기구회의의 공개,비공개외 양면회의에 연속출석, "미국은 비에트남에있서서의 해결의 고성에있서서는 유연하고 허용적인 태도로 대하고있다. 그러나 남비에트남의 인민의 자유선택이라는 원칙에서는 라협하지안는다" 라고 발언, 또 동남아시아기구가맹국의 외상들에대해서, "미국은 동남아시아의 안전보장에대한 책무들 포기하지안는다" 라고 약속하였다. 공개회의에서의 동장관의 연설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1. 아세아의 그의 여러민족의 번영과 안녕에대한 관심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변할수없는, 고정된 방침이다. 내가 오늘 여기에 출석한것은 그의 증거라고할수있다.
1. 그러나 미국정부는, 다수의 긴급한 문제에대해서, 가지고있는 자원을 어디케 분배하여야할지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하게되어있다. 한결하는 국내, 국외의 제투적에관한 관심사이에서, 어느 형태도 균형을 잡아 결정을 지지안으면안된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만든 비용을 내게하고 너무 오래 계속된 전쟁에 회평의 해결을 얻을것을 희망하고있다.
1. 미국의 정책은 남비에트남의 자유선택을 확보하는동시에, 아세아이든지 단 장소에서이든지 "또 하나의 비에트남" 의 사례가 일어날것을 방지하려는것이다.



(제 3편으로부터 계속)

타자 스장관은 첫 동남아세아세의 외교방문에서 제국의 수뇌부에 보증을 주는 동시에, 또 하나의 접으로서 "미국의 자원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 을 들었다. 이 경고는 확실히 미국이 급우 비에르남 전쟁중의 높은 비용이므로 그의 역할을 내릴 것을 시사하고, 장래 동남아세아원조, 안전보장에 넣는 임을 안정할 바탕하고 있다.

하와이 주의회 적자 예산으로 종막 정부고용원 제 분야에 큰 증급

하와이 주민감시중 법정 회기를 8일간이나 연기하고, 파란에 파란을 찍은 재정제법안의 조정과 싸우고 있던 주의 회양원회의 회는 5월 22일 밤에 예산, 증급안의 2대안의 조정심의를 마치고, 최종안을 각각 상하양원에 송부, 24시간을 경과한후 23일 밤 양원에서 재결에 부치기로 되었다. 양원에서의 비결주로는 기존의 사실투보이기 때문에 예상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파란에 한 급기주의 회도 23일 밤 7가지에는 제외할 예정이다. 명백히한 신재정안의 전모는 (1) 정상예산은 2억 9천 5백 20만 불로 정부원안보다 백 80만 불 많은 것 (2) 도록공사예산은 정부안을 대폭으로 삭감하여 3억 1천 7백 40만 불 (3) 세입은 정부추정대로 증수가 실현되지 않을 때에는 장기공채의 발행으로 보충한다는 적자예산 (4) 가장 도른이 쉰 증급안에서는 주, 시, 군 모든 정치기관을 통해서 관공리는 거의 안사람도 배지안도 최고 35.4% 가까지의 증급 (5) 도록예산안에서는 예산의 사용을 지사단독의 선택에 일임한 것이 특히 주목된다.

초임교사에 최고 증급, 지사도 대폭 증봉

공무원의 증급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음의 여러점이다.

1. 초임급교사의 급도는 현재의 5,300불로부터 금년 9월에 6,897불, 내년 9월에는 7,177불로 증액, 금년 9월 신입의 교사에 한해서 부임비용으로서 별도로 125불을 지급한다.
2. 고참교사등도 금년 9월과 내년 9월의 두차례에 걸쳐서, 평균 20%의 증급, 보통교사의 최고봉급은 14,777불, 박사오를 가진 자의 급도는 15,447불로 된다.
3. 대학교수의 급도도 16%로부터 20%까지의 등급 여러층의 증액
4. 전 교사, 공무원등의 은급도 20% 상승, 최저은급액을 월 30불로부터 50불로 인상
5. 주, 시, 군정부고급관리급의 급도도 올려, 지사의 년봉이 33,500불로부터 8,500불이 올라서 년봉 42,000불 (이것은 신입 하의이대략총 크리브랩드씨의 봉급이 4만불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와 균형을 잡기 위해 증봉)
6. 부지사의 년봉이 27,500불로부터 35,700불로, 주최고재판소판사 28,000불로부터 33,880불로, 순회법정판사 25,000불로부터 30,250불로, 지방재판소전임판사 들 23,670불로, 주정부국장급이 26,250불로부터 30,250불로
7. 호노룰루시회는 의장이 12,000불로부터 16,000불, 시회의원이 10,500불로부터 14,400불로
8. 단선선 판정부의 감사원이 10,800불로부터 12,000불로 증봉
9. 기타 일반공무원은 같이 금년 7월과 내년 7월의 두번에 걸쳐서 사무원급이 20% 하급원급이 5%의 증급 이의같은 대폭증급이 가져오는 지방자치체의 세출증가를 보충하기 위해 금년에 한해서 주정부로부터 특별보조가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부동산세의 인상에 의한 증수의에 매야 한다고 하며, 지급부터 이미 증세불가미의 해상이 강하다. 적자공채도 남세자의 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 파가 된다. 또 신예산안은 아마모아나공원에 생긴 섬을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출, 다이야콘: 펠트외구내에 국민군용의 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지출등을 삭제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